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성경: 요한계시록 7:9-17

Tag: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7:9-17)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하였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9...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 12:13)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행차나 개선장군의 입성을 축하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하였다.

종려나무는 사막지역 오아시스에서 잘 자라는데, 그 뿌리가 무려 100m나 깊이 내린다고 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 그 열매는 대추야자열매인데, 요한이 먹은 석청이 바로 이 대추야자라는 설도 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길 바닥에 깔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에는 ‘나는 당신이 왕 되심을 찬성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사람의 겹옷은 그 사람의 옳은 판단을 상징한다. 그 옷은 그 옷 주인의 도장과 같은 셈이다. 마치 우리가 대통령 선거 하듯이 나는 당신의 뜻에 찬성한다는 고백인 셈이다.

당시의 선량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지 않고, 자신의 겹옷을 벗어 길에 깔아놓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다. 바리새인 무리들이 그들인데, 그들은 당돌하게 예수님께 와서 저 사람들이 ‘호산나(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를 외치지 못하게 하라고 항의 하였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정의와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저 무식한 무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호산나’를 외쳐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외침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이 외치는 것이 낫다고 하셨다. 만약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더 곤란하지 않겠느냐? 나무도 노래하게 될지 모른다. 날아다니는 참새들이 때로 몰

려와 지지귀면서 ‘호산나’를 외칠지 모른다. 다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나아와 외치기를 기뻐하셨다.

누가 이 무리들을 모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들을 모으셨다. 전날 밤에 천사들을 각 가정에 파송하셔서, 꿈이나 환상으로 지시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환영회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성경에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는 모든 지혜, 권세, 능력이 있으셨으나, 당시의 통치자들처럼 군중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권능과 힘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기 원하셨고, 그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원하셨다.

###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통치자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다. 백성이 통치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물론 백성들은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역할을 감당함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셨다. 자기 욕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따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섬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셨고, 백성들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업은 저들의 저주를 끊고, 죄를 소멸시키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

효력이 무한해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그 결정에 아멘 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고, 자신의 왕권을 전부 내어 주시면서 백성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다.

영원하신 분의 희생이기에 그 효력은 영원하며, 무한하다.

선하신 만왕의 왕의 희생이기에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용서를 주시기에 합당하시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호산나를 외친 백성들은 적절하고 합당한 간구를 하였다.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이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신 만왕의 왕께서 만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장관을 관람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우리 모두는 이 장관을 관람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일종의 초대권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모두 요한이 경험한 천국 공연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해치는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해치려고 할 때에 다른 천사 무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을 멈추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인데 합이 14만4천명이었다. (숫자는 구원받은자의 숫자라는 상징성이 있지, 꼭 14만 4천명만 구원받는다든 뜻이 아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보고회가 열린 이후를 말한다.

-그런데 곧 바로,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14만4천 보다 더 큰)의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보고가 그 뒤를 이었다. 바로 9절이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각 나라, 족속, 백성들과 방언에서(우리가 여기에 속한다.)**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났다.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임을 뜻한다.

-손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행사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좌 앞 어린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고 일제히 외쳤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 우리를 구원하심 분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습니다! 간구가 아닌 선포.

-그러자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화답하기 시작하였다.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런데 13절 부터는 이렇게 구원받게 된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새로운 국면을 시작한다.

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한 장로)이 아시나이다.

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러자 그 장로가 가르쳐 주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환난을 뚫고 나오는 자들)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양의 피로 환난을 뚫고 나오는 자들.

-피는 붉은 색인데 어떻게 옷이 희게 되었을까?

-피는 희생의 피, 대신 죽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죄가 씻김을 받고

-씻김을 받고 깨끗해졌다는 의미로 흰옷을 입게 됨을 의미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보좌 앞에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주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물론 이때의 보좌와 그의 성전은 영적인 장소를 뜻한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기도-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요 보좌 앞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이란? 보호막. 쉴드. -보호가 필요한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장막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하라.

-오히려 교회를 허물고 스스로를 장막성전이라 선전하는 이단의 무리가 곧 사탄의 회가 아니겠는가.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을 곤경 가운데서 건져 주시리라.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보다는 현재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호산나 외침은 과거의 외침도 아니고, 미래의 외침도 아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이 호산나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존 스토틀의 총체적 영성

성경: 로마서 3장 22-24절

Tag: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3:22-24)

기도회;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새 정부에 하나님의 은총이

-헌법의 가치가 지켜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의 계획이 무산되기를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전도에 열매가 맺히기를

-북한의 도발이 무산되고, 속히 통일 되기를

존 스토틀(John Stott, 1921-2011, 90세)

-아버지는 아놀드 스토틀 경. 과학적 무신론자.

-어머니는 루터교도.

-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와 리들 홀(Ridley Hall)에서 신학 공부, 영국 성공회 목사.

-1950년 런던의 올 소울즈 교회에서 목회 (1945년 부목으로 부임) 29세.

-손님 초청예배, 평신도 훈련학교

-강해설교로 유명

-대학생 선교대회 주 강사(그의 설교는 성경에 기반한 지성에 호소

하는 설교)

-세 번째 스토트의 사역의 특징은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성경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 있다.

-복음전도와 사회적 관심사를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과 복음전도의 균형을 강조했다. (로잔대회 정신)

\*영성(카톨릭 냄새, 신비주의 경향)이란 말 보다는 제자도라는 말을 선호함.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공회는 매우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그래서 이념주의자들이 양산됨. -초기 사역자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공산주의 이론가)

\*전 삶을 포괄하는 영성;경건+수평적 세상의 변화 추구

-두가지 극단 (영성;신비주의 - 세상의 소금;인본주의적 방식)  
-평생을 독신으로 삶. 그는 독신제도를 반대하나 스스로는 독신으로 살았다.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김.

-16세에 회심. 사립학교에서 성경적 복음을 듣는 가운데 회심.  
-학교 도서관에서 흰옷입은 예수님을 만남. '나를 따르라'  
-압도적 기쁨을 경험함.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됨.  
-그날 밤 그는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됨.  
-그는 스스로 회심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체험 강조;설교자의 말이 아무리 명확하고 호소력이 크다 할지라도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의 영적 갈망은 성서유니온 순회 설교자 내쉬를 만나면서 해결되었다. 7년간 편지로 영적 성장을 도와 주었다.

\*총체적 영성의 요건

1) 귀를 기울임; 잘 들어야 한다. 귀로, 삶으로, 인격으로, 성령으로.

2) 지성과 감성;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해석하라. 지성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인간의 감성은 영적인 체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적 기쁨을 누리는 것,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감성이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감성.

3) 인도, 소명, 사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봉사로 받기 원하신다.

.인도를 따라 살려면(하나님의 목적에 굴복하라.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하라.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말라)

.부르심을 따라 살려면(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으라.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으라.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으라.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으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으라.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으라.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으라. 이웃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으라.

.각자 맡겨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으라.-은사로)

\*십자가 중심의 영성-십자가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복음의 진수다. 구유의 아기, 세례요한의 회개 촉구, 병고침... 등은 오직 십자가에 그 초점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 가장 둔한 양심도 깨우며, 가장 완악한 마음도 녹인다.

부정한 자를 깨끗케 하며, 멀리 있던 자를 화목시키고, 갇힌자를 풀

어주고, 빈궁한 자를 그 누추한 곳에서 끌어 올리며,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며, 제멋대로인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서기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

\*죄 인식과 회개

-인간의 죄성을 아는 것이 영성의 첫 걸음.

\*전투적인 기도생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